

Feline upper respiratory disease.

캣츠앤독스 동물병원
이 미 경

고양이임상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질병군은 “고양이상부호흡기질환”일 것이다. 고양이상부호흡기질환은 임상징후가 매우 다양하고, 대개 만성화되어 비염이나 천식으로 재정립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질병이다. 고양이상부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체와 그 치료법, 예후에 대해 살펴본다. 한국에서 가장 타당한 검사와 치료법은 무엇인지, 이들 원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정리해본다.

언제 고양이상부호흡기질환을 의심할 것인가?

- Feline Rhinotracheitis Virus라 부르지 말아야 할 이유
- 고양이 “코”에 대한 각별한 이해
- 관련증상
 - 눈물과 콧물
 - 눈곱
 - 발열
 - 구강궤양
 - 비염
 - 결막염
 - 구내염

Etiology

Major cause of URI

- FHV
- FCV
- 임상증상이 서로 비슷하여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.
- 이런 이유로 “감염호흡기증후군”으로 불린다.
- BB
- Chlamydia
 - 비교적 경미한 임상증상을 보이며, 다른 원인과 함께 복합감염될 때가 많다.
- Mycoplasma



- 감염 외 외상, 알러지, 비강종양, 치아질환
- 고양이의 상부호흡기질환 중 90%는 단연 고양이허피스바이러스와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가 원인이다.

Transmission

- 어린 개체, 백신이 안된 개체, 집단생활군
- 직접접촉
 - 눈, 귀, 구강의 삼출물
- Fomites, Aerosol
- subclinical carriers as reservoir of infection
 - FHV, FCV에서 회복한 고양이의 80 이상
- FHV
 - 스트레스, 분만, 수유, 스테로이드에 의해 재발
 - 경미한 임상증상, 2주간 shedding
- FCV
 - 회복 후 수개월에서 수년간 구강인두에서 shedding

고양이상부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감염원에 대한 치료법

- 입원치료와 통원치료
- 주로 대증치료에 집중하게 된다.
- 항바이러스요법
 - Human interferon alpha vs. Feline interferon gamma
 - L-lysine
 - 항바이러스안약
- 항생제요법
 - 전신항생제와 항생제안약의 선택
- mucolytics
 - 분무치료
 - 내복약
- 안약의 선택
- 식욕촉진제

한국에서 가능한 검사법

- 항체검사

- PCR
- 임상증상과 노출정보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.
 - Naso-ocular sign, corneal ulceration : FHV
 - Oral ulceration : FCV
 - Persistent conjunctivitis : chlamydia

백신,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?

- Modified Live vaccine & Killed vaccine
- 국내에서 고양이헤르페스바이러스와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나, 여전히 이 두 질병은 고양이에 흔히 발생하는 전염질환이다. 예방접종은 감염을 완벽하게 막아주지 못하고 증상을 경감시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.
- 예방접종을 100% 신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.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있을 때는 다시한번 전염병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근본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법이다.
- 하지만 워낙 전염성이 높고, 수많은 strain에 의해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므로 한계를 가질 지언정 예방접종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.

치료 후 후유증

- subclinical viral carrier
- 만성 비강염, 비염, 코막힘
- 만성 눈물과 눈곱
- 각막부골화
- 만성 구내염, 치은염, 인두염

집단생활을 하는 고양이에 대한 대처

- 모든 고양이는 백신 필수
- 새로 입양된 개체는 백신 후 합사
- 소독
- 만성 클라미디아결막염
 - oral doxycycline, tetracycline ointment

